



김경진

천재교육 지도 제작자

낮선 지하철역을 헤맨 적이 있다. 이리 저리 돌아다녀 봤자 더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때 나타난 한 장의 지도. 지도를 보는 순간 모든 답답함이 한순간 사라진다. 낯선 세상에서 내 위치가 '자리매김' 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분주한 사람들과 생경한 상점들로 달라진 것이 없지만, 자리매김 되어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다. 내 머릿속 지도의 빈곳이 채워지는 순간이다.

지도가 없었다면 지금 같은 복잡한 세상의 일원으로 온전히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2020년 4월 '코로나 19. 위기의 이탈리아.'라는 제목의 기사를 봤다. 지중해에 있는 장화 모양의 땅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 그리고 그 동편 아시아 끝의 반도에 살고 있는 나와서의 거리가 떠올른다. 오늘날 지도는 공간과 인식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지도를 통해 모든 것이 자리매김 된다.”

책에서 본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인해, 나는 지도의 가능성을 보았고, 지도는 나에게 특별한 것이 되었다.

### 세 번의 기회

대학교에서는 디자인과 광고를 전공했다. 밤새워 공모전을 준비하며 늘 유명 광고 회사에 들어가길 꿈꿔 왔는데, 꿈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졸업 후 가질 수 있는 첫 직업은 프리랜스 일러스트레이터였다. 미술 학원을 다닐 때, 선생님에게 늘 그림에 재능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 왔는데, 결국 화가가 되었다. 시작은 쉽지 않았다. 일을 찾을 수 없어 대부분의 시간을 은사님이 아트디렉터로 계신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보냈다. 출판사에서 한 일 중에 일부가 지도를 그리는 일이었는데, 당시는 내가 지도 제작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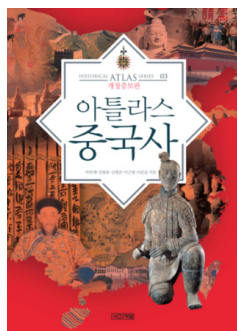
제대로 된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은 졸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지인을 통해 작은 출판 기획사를 소개 받았고, 이후 꾸준히 어린이 동화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인생엔 세 번의 기회가 있다.’ 이 말의 유래는 모르겠으나 나에게도 기회는 찾아왔다.

그 첫 번째는 이러했다. 어느 날 일하던 출판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다. 난 여느 때처럼 그림을 발주 받을 생각으로 기획사를 방문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현재 그림책 전집을 기획중인데 입사해서 화가를 선정, 발주하고 컨트롤해 줄 수 있냐?”는 것이었다. ‘그건 아트디렉팅인데!’ 출판사 아르바이트를 하며 늘 보아왔던 그것 아트디렉팅이었다. 욕심이 났다. 망설임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50여 권의 책을 일 년에 걸쳐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책을 만들며 떠오르는 다양한 생각들을 마음껏 담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그중 다섯 권의 책은 영국 킥피셔 출판사로 판권을 수출할 수 있었다. 당시는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순간이었다.

두 번째 기회. 행운(기회)은 사람을 통해 온다고 한다. 나에겐 누군가로부터 일을 제안 받는 형태로 찾아왔고, 내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알지 못하게 조용히 다가왔다. 사계절 출판사의 ‘아틀라스 시리즈’는 지도 제작자로서의 나를 있게 한 책이다. 그 책을 통해 지도 제작자의 길로 들어섰으니,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책이다. 당시 책을 기획하신 분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출판사의 편집장이셨고, 나에게 찾아온 때는 아틀라스 시

리즈 1권을 성공적으로 론칭한 후 2권을 계획하고 있을 때였다. 미팅 때 편집장은 나에게 지도책 원서를 보여 주셨는데, 힐셰이딩(음영)이 쓰인 지도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었다. 나는 그 모습에 매료되었고, 그렇게 시작된 책이『아틀라스 중국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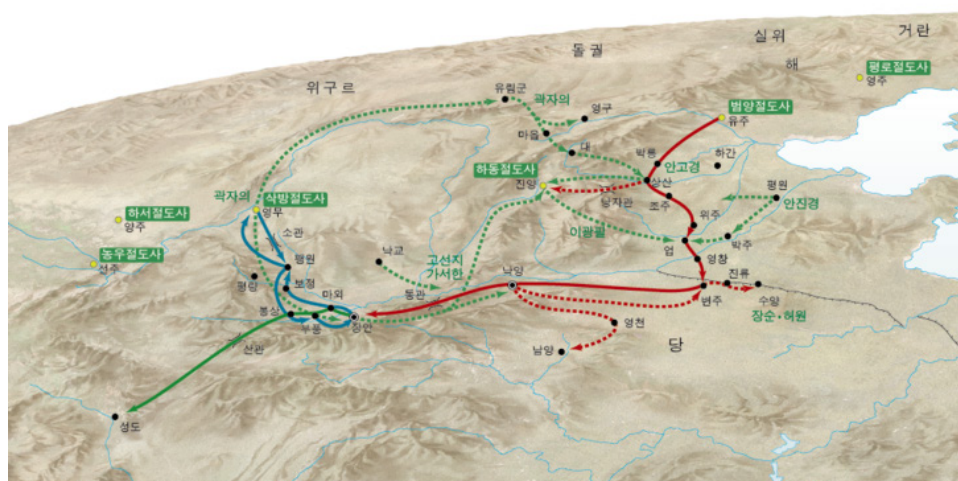
사계절 출판사의  
『아틀라스 중국사』 표지



『아틀라스 중국사』 본문

힐셰이딩은 ‘지형의 높고 낮음으로 인해 생기는 음영’을 말한다. 『아틀라스 중국사』를 작업하면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 중 하나가 힐셰이딩이다. 역사 지도에서 음영은 지도를 정교하고 아름답게 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정보가 된다.

현재는 음영을 제작할 때 아크GIS(지도 제작하는 툴)를 사용하지만. 당시는 GIS는 나



『아틀라스 중국사』에서는 구형 지도를 손으로 직접 그려냈다.



ArcGlobe를 활용한 구형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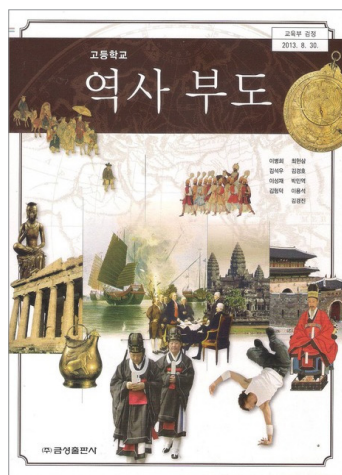
에게 생소한 도구였다. 그래서 외국의 많은 역사 지도책들을 참조해 포토샵으로 음영을 그리기로 결정하고 지도 제작을 시작했다.

구글 어스를 켜면 동글란 지구본 형태의 지도가 나타난다. ArcGlobe(지도 제작하는 툴)를 활용하면 이러한 지구본 형태의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책에서 구형 지도를 잘 활용하면, 더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레이아웃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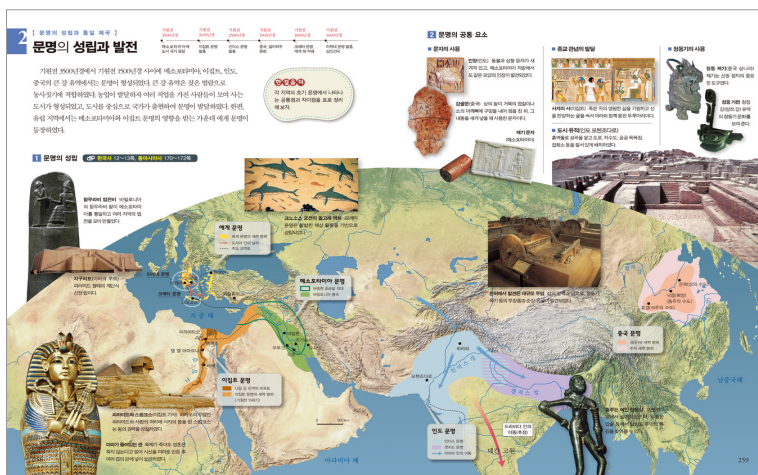
손으로 그린 지도는 따듯한 감성이 남아 있다. 수고가 많은 만큼 보람도 있었다. 하지만 GIS를 활용하면서부터는 더 이상 손으로 음영을 그리지 않는다. 한때 목공예 관심이 있어 가구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낀 것은 ‘도구가 일을 한다’는 것이었다. 가구를 만드는 데는 정말 다양한 도구가 쓰인다. 망치와 톱만으로 훌륭한 가구를 만들 수 있겠지만, 적절한 도구를 찾아보는 편이 훨씬 낫다. GIS는 지도를 그리는 최적의 도구이다. 힐셰이딩(음영) 만큼은 GIS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지도에서는 감성과 느낌보다 정확한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틀라스 시리즈는 중국사 이후 일본사, 중앙 유라시아사로 이어졌고, 나는 점차 지도 제작자로 여러 출판사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기회로 ‘아트디렉팅’을 경험했고, 두 번째 기회로 ‘지도 제작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세 번째 기회는 교과서 시장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나는 ‘지도책을 아트디렉팅’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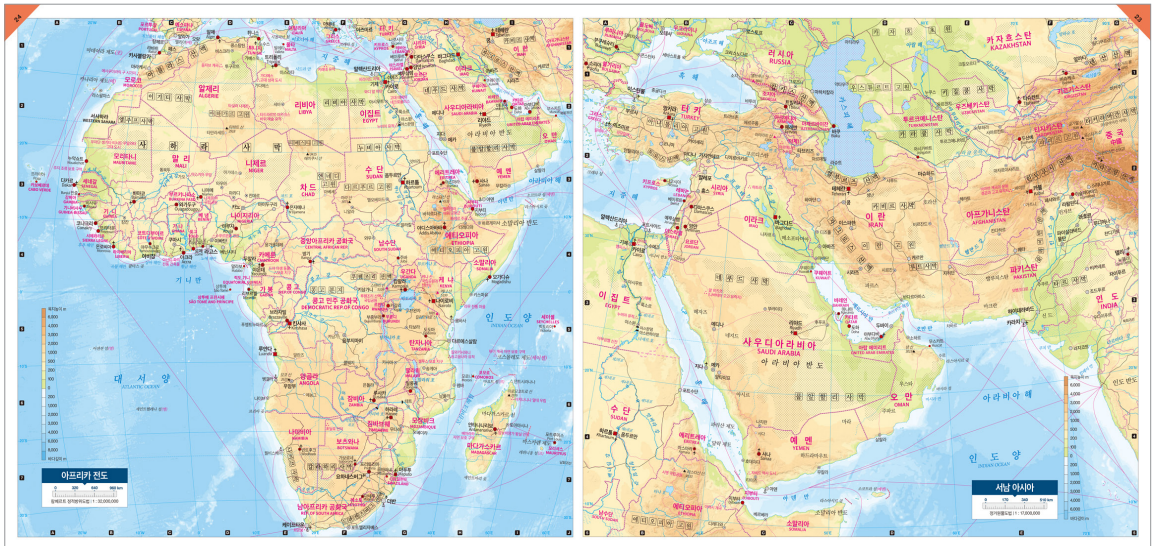
금성출판사『고등학교 역사 부도』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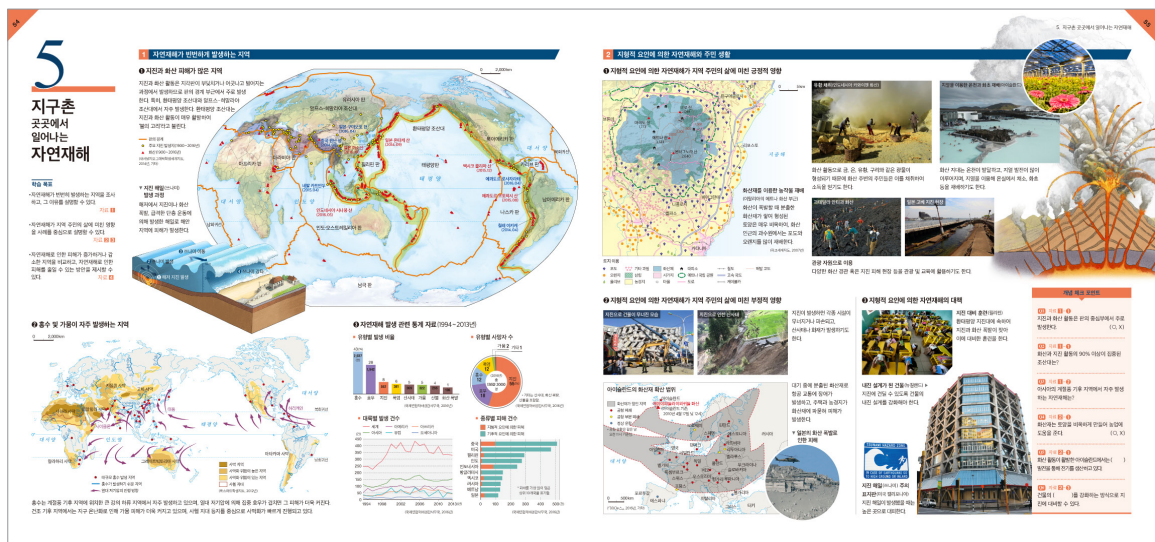
금성출판사『고등학교 역사 부도』 본문

지도 제작자로 점차 알려지면서 교과서 출판사에서 의뢰가 오기 시작했다. 교과서 중에 지도 제작자를 필요로 하는 책이 있는데, 바로 역사 부도, 사회과 부도이다. 처음 교과서 출판사에서 제작을 의뢰 받았을 때는 선뜻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교과서 일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걸고 전념해야 하는 일이라 얻는 만큼 포기할 부분이 너무 많았다. 당시 단행본 시장에는 규모가 큰 기획물들이 쏟아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과서 시장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긴 시간을 고민한 후에 결국 교과서 출판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늘 만들어 오던 책이기에 ‘책 한 권 만드는 것쯤이야’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최대치의 결과물을 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특히 합격과 채택률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것을 위해 기존 교과서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는 외형체제의 제한이 처음 풀린 때였고, 페이지 수 제한도 없었던 시기라 외형 체제를 통해 큰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봤다. 팀에서 ‘판형이 작고 대신 페이지가 많은 책’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차별화된 외형은 먼저 저자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작은 판형의 제약을 기꺼이 감내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덧붙여 판형이 더욱 돋보이게 해 주셨다. 그렇게 나온 책이 금성출판사의 「고등학교 역사 부도」이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다. 채택률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교과서 시장은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타사가



미래엔『중학교 사회과 부도』 일반도



미래엔『중학교 사회과 부도』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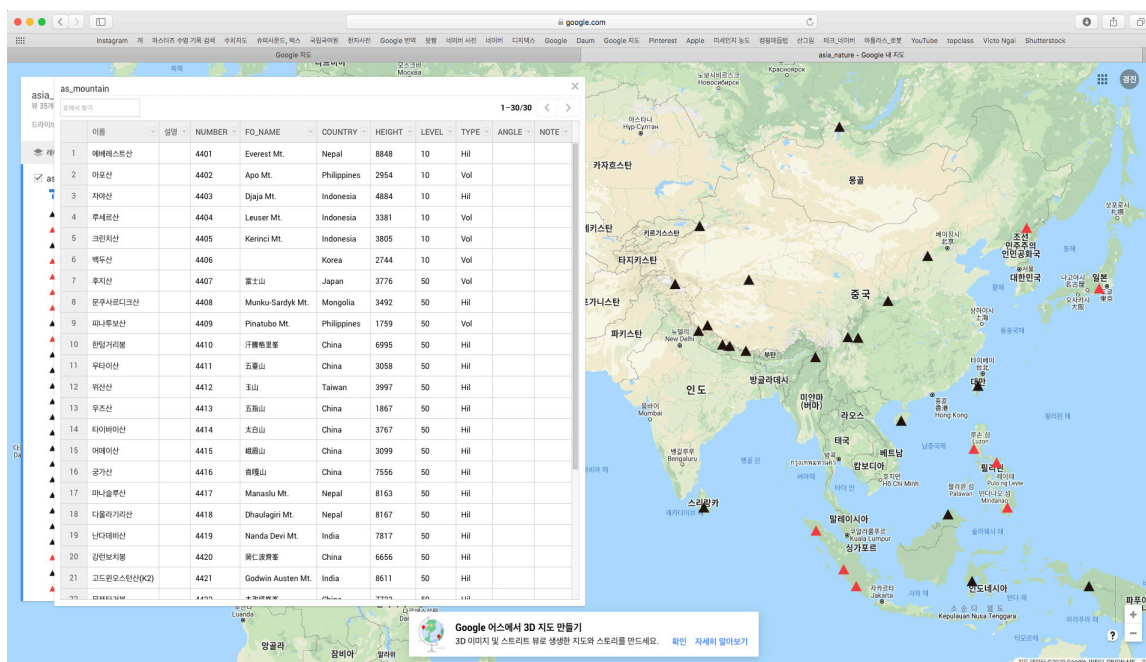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면 우리가 빼앗긴다. 교과서를 출시하고 받게 되는 성적표는 내게 심적 부담임과 동시에 도전하게 하는 강한 원동력이 되었다.

아이디어는 톡톡 튀어 오르는 팝콘과 같다. ‘가로로 넓은 판형의 사회과 부도’가 떠오른 것은 휴일 낮이었다. 당시 ‘일반도(우리나라 및 세계 지도)의 분량을 줄일 수 없을



까?’라는 고민에 빠졌는데, 가로 판형의 사회과 부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판형을 가로로 하면 원래 두 페이지에 걸쳐 들어가던 지도를 한 페이지에 넣게 되면서, 일반도 분량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었다. 그만큼 줄어든 페이지를 본문과 부록을 더 풍성하게 구성하는 데 쓸 수 있었다. 본문 레이아웃도 좋아졌다. 늘 애매한 세로 길이 때문에 두 개의 지도를 넣자니 공간이 남고 세 개를 넣자니 공간이 좁았는데, 가로 판형은 두 개의 지도를 적당한 크기로 넣기에 딱 좋았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때도 있다.

교과서를 만들며 GIS를 활용한 시기는 바로 이때부터이다. 이쯤에서 GIS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 정보 시스템, 즉 지리 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변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 GIS를 활용하면 더 정확한 지도를 그릴 수 있고, 효율적인 협업을 이룰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자가 특정한 장소를 구글 지도에 표시해 작업자와 공유하면 그 위치를 교과서 지도에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 지도 위의 지명은 위치뿐 아니라 수도, 인구 등 부가적인 정보가 따르는 경우가 일반적이인데 이러한 정보를 엑셀의 형태로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할 수도 있다. 교과서 지도를 만들기에 가장 적절한 도구가 바로 GIS이다.



GIS를 활용한 지도 제작

## 남은 숙제

블로그에 내가 만든 지도책을 소개하곤 한다. 간혹 그것을 보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 본인을 ‘지도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신다. ‘지도를 좋아하다니’ 나는 신기하기만 하다. 지도는 친절하지 않다. 지도 읽기는 고단하고 어려운 일이다. 쉬운 것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모든 정보를 동영상으로 재미있고 쉽게 얻을 수 있을 수 있다.

작업을 하면서 늘 저자 선생님들에게 지도를 글로 쉽게 풀어 주시기를 요청한다. 지도 읽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사회과 부도와 역사 부도는 교과서를 보조하는 책이다. 그래서 그 활용도가 크지 않다고 한다. 이 부분은 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아픈 부분이다.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지도책을 만드는 것이 큰 숙제로 남아 있다.


교과서 시장에서의 무한 경쟁은 출판사와 저자들에게는 가혹한 채찍이지만 좋은 교과서가 나오기 위한 꼭 필요한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다시 새 교과서를 만들면서 합격하기 위해 애쓰는 중이고, 점유율을 높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학생과 선생님께 좋은 교과서를 제공하는 결과로 돌아간다고 믿는다.

우연과 행운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나는 지금 지도 제작자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에 만족한다. 처음 지도를 그리며 읽은 와카바야시 미키오의 『지도의 상상력』은 내게 큰 자극이 되었다. 그 책의 한 구절을 남기며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

“물론 인간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것을 보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다양한 사건을 경험한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이상으로 훨씬 많은 것, 많은 사람, 많은 경험을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고, 그것을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 속에 자리매김한다.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자신이 직접 보고, 만나고, 경험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물이나 인간,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고비사막 한가운데 서본 적도 달의 표면에 서본 적도 없다. 브론토사우루스를 본 적도, 소말리아 내전에 참가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때로 나 자신의 감정이나 지각보다 훨씬 확실한 사실성을 지니며, 내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서 확고한 장소를 차지하고 있다.”

나는 지도가 세상 속에 자신과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자리매김하는 데 없어서



는 안 될 가장 필요한 도구라 믿는다. 

#### 참고 문헌

박한제, 김병준, 이준갑, 이근명, 김형종(2007).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미래엔, 중학교 사회과부도.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역사부도.

#### 필자 소개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였다. 현재는 교과서 출판사에서 지도 제작자로 일하고 있다. 『아틀라스 중국사』(사계절출판사), 『용선생 세계사』(사회 평론),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웅진지식하우스) 등의 책에 지도를 그렸다.